

## 녹색 왕자

이번 주 “하아레쯔(이스라엘 3대 히브리어 일간지)”에는 셰이크 하싼 유세프(하마스의 설립자 중 하나이자 최고 지도자)의 아들 마쓰아브 유세프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1996년, 18세였던 마쓰아브는 불법 무기 소지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감옥에 던져져, 무자비하게 폭행 당하고 심문 받았습니다. 바로 그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죽이겠노라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안군은 마쓰아브가 자신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애를 썼고, 그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중 요원이 되어 내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감옥에서 지내던 동안, 마쓰아브는 하마스 지도자들이 같은 무슬림 죄수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슬람에 환멸을 느껴 하마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쓰아브는 1997년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석방 이후, 그는 이스라엘 보안군 장교들과 만남을 이어갔고 그들의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무슬림이나 팔레스타인 사람 전체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으며 그저 테러 공격을 중단하려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쓰아브는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1999년 영국 출신의 한 그리스도인 여행자가 예루살렘 올드 시티의 다마스쿠스 문 근처에서 그를 만나, 성경 공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던 그는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쓰아브는 거기서 만난 젊은이들이 마음에 들었고, 대화도 즐겼습니다. 그는 집에 아랍어 신약 성경을 가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마 5:43-44**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젊은 마쓰아브는 예수아께서 가르치신 사랑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들어온 모든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마음 속에 갈등해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듯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소망의 빛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몇 년 간, 마쓰아브는 예수아를 믿는 성도로 거듭나 이스라엘의 주요 비밀 요원으로 서안 지역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코드명으로 ‘녹색 왕자’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녹색’은 하마스를 상징하는 색이요 ‘왕자’는 그가 최고 셰이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마쓰아브는 여러 번의 중대한 보안 관련 사건에 투입되었습니다. 제 2 인티파다 및 알 아크사 테러 고리에 침투하여 하마스와 PLO의 관계를 노출시키고,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하마스 본부로부터 비밀 정보를 가로채며 수많은 자살 폭탄을 휘방 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보안군 장교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젊은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쓰아브는 다른 많은 팔레스타인 요원들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돈이나 어떤 필요 때문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마쓰아브는 굉장한 인정을 받았고, 은밀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때로는 총리나 국방 장관의 결정까지 그의 말 한 마디로 반복될 정도였습니다.

그가 하아레쯔와 인터뷰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 번역했습니다.

“저는 드러누워서 두렵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사람 등 수백 명의 목숨을 제가 구했다는 사실을 인해 힘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진해 갈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편도, 팔레스타인 편도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시는, 저의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입니다.

이-팔 분쟁의 뿌리는 군사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닙니다. 실상 두 “신들”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곧 토라의 신과 코란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코란은 이 땅이 이슬람에 있어 거룩한 것이며,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토라는 유대인들에게 이 땅이 그들의 것이며, 결코 포기해선 안 됨을 가르쳐 줍니다.

온건한 무슬림조차도 코란에서 유대인들이 원숭이의 자손들이며 이교도들이니 죽여 마땅함을 배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온갖 문제를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진정 자유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들의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마스 지도층은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교도들과 평화를 맺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하마스 지도층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모스크에 앉아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고층 건물에서 사람들을 던져 버리는 일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가자를 차지하게 됐을 때도 바로 그렇게 행했으니 말입니다.”

2007년, 마쓰아브는 미국으로 이주했고 지금까지도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마쓰아브는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께 예수아에 대한 믿음과 이스라엘 보안군을 위해 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쓰아브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며, 사모하는 아버지와 나는 대화는 분명 가슴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마쓰아브는 현재 자신이 하마스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스라엘 보안군에서의 근무, 그리고 예수아를 믿는 신앙 등을 담은 책을 낼 예정입니다. 부디 책이 출간되자마자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발매 전 원고를 받았는데, 1 페이지를 읽고 나니까 밤새 내려놓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젊은이를 영육 간에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분명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마쓰아브의 믿음의 간증이 서안 지역에 모두 퍼지고 있고, 충격적인 영적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 소식

**TV:** 아세르의 인터뷰가 지난 주에 방송되었습니다. 보고 싶으시면(현재는 히브리어로만 볼 수 있고 자막이 없습니다), <http://www.23tv.co.il/282-he/Tachi.aspx> 로 가서서 455 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말하기를, 이미 초정통과 측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위협과 민원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에스더 금식:** 약 12 개의 공동체가 이번 주 예루살렘에서 열린 성회에 참가했습니다. 목회자들 간에는 연합이 있었고, 찬양과 회개, 중보, 예언적 선포, 쇼파 불기와 성 만찬 등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는 히브리어로 진행됐습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은 기회가 더 있기를 고대하고 있고,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격려를 받았습니다.